

크레인 동원·용접불꽃...4개원 막바지 작품 설치 '속도전'

공식 개관 D-7...문화전당 가보니

공식 개관(25일)을 일주일 앞둔 17일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등에서는 용접불꽃이 튀었다. 작품을 전시할 철제 틀을 만드는 공정이었다. 나머지 공간들에서는 막바지 내부 도색작업과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를 설치하는 과정이 뒤섞여 진행 중이었다. 공간 구성이 완료된 아시아예술극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원에서는 공간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문화장조원 복합전시관(1관)에서는 크레인이 동원돼 실내 공간 구축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반 건물 4층 높이의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천정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동원한 것이다. 오는 25일 개관 기념전 'The Ground - New Making'에서 선보일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 공학자 등이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과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창조원 복합 전시관(3관)에서는 개관작 '프로젝트 유라시아' 준비가 한창이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과 국가들 간 중첩된 영토 영역을 시각화하는 영상물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다.

창조원 복합2관에서도 현장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작품 설치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개관 전시 주제인 'Imaginary Circle, Asia Plastic Myths'(상상원 아시아·플라스틱 신화)를 선보이기 위한 작업이다. 플라스틱 신화(Plastic Myths)는 아시아의 신화를 창조적 모티브로 활용한 전시다. 예컨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아이언맨과 같은 현대의 영웅으로 재탄생시킨다.

문화전당 정보원은 사실상 콘텐츠 구축작업이 완

4층 높이 전시공간 개관전 준비

어린이문화원 동굴극장 등 설치

전당내 편의점 2곳 이미 문 열어

료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부분 개관 때 선보였던 사진과 음향 전시가 이어 이번에 새롭게 문화전당 건립 전과정을 조명할 건축코너와 도서관격인 라이브러리파크내 리딩룸도 단장을 마쳤다.

시민들은 리딩룸에서 정보원이 소장한 희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문화정보원에는 관람객 2~3명이 영화나 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원형의자도 설치돼 시험 가동중이었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체험놀이 시설 등을 확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독서실도 서가를 갖췄고 각종 체험이 가능한 시설 등이 속속 설치되고 있었다. 동굴모형으로 만든 동굴극장, 실내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모습을 드러냈다. 미니 인공 암벽과 수평하강기, 아시아의 지형을 볼 수 있는 인공 구조물도 설치됐다.

문화전당 내부에는 편의점 2곳이 문을 열었고 오는 25일까지 카페와 음식점 6곳 등이 오는 25일까지 모두 문을 연다.

어린이문화원에는 카페테리아, 어린이다과점이 들어서고 민주평화교류원 인근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입주한다. 예술극장 1.2 주변에도 각각 차와 음료를 마시실 수 있는 카페 2곳이 개점한다.

문화정보원에는 컴퓨터로 운용되는 첨단 물품보관함도 설치돼 있다. 터치 스크린으로 자신이 물건을 보관할 사물함을 선택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납함이 자동으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의 리딩룸(독서공간). 갓을 연상케하는 조명으로 불을 밝힌 이 공간은 관람객들이 문화정보원이 소장한 희귀도서 등을 빌려보는 곳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 넘겨받은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돌파구 열까

20일까지 기준 마련 선관위 전달

여야 비례대표 축소 등 입장차 여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의 '공'이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옴에 따라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여야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이른바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개동,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일단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을 선거구 획정 1차 데드라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부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구 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개특위는 지난 '4+4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협상에서 여야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253개로 늘리는 방안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대로 한다면 호남(전남 1석, 전북 1석)과 영남은 각각 2석의 의석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광주 동구는 특례조항이 적용되면서 연결된 남구 선거구와 합쳐져 동남갑, 동남을 2개의 선거구로 나뉘면서 광주는 현행 8석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당 측에서는 물론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연 의원이 지난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며 지역구 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를 7명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정수를 소규모 늘릴 것을 주장,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조건으로, 새정치연합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늦춘다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선진화 법 개정 문제와 선거 연령 하향 및 투표 시간 연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들 '동구 지키기' 강건너 불구경

탈당 박주선의원 지역구 신경 안써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조 '눈총'

20대 총선에서의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정개특위를 다시 가동하며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의석 지키기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4+4'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특례조항을 적용해 광주 동구를 연결된 남구에 붙여 다시 2개의 선거구로 분할, 광주의 현행 의석(8석)을 유지하는 방안이 의견을 모았는 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 지역 대표성을 명분으로 대표실 점거 농성을 감행하는 등 전남 의석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 비하면 극히 대조적이다.

여기에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표를 만나 광주 동구의 선거구 존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동구 지역구 유지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동구가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 지역구라는 점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 동구 지역구 유지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광주 모 의원은 "올해 초 광주시내에 구간 경계조정에 나서달라는 요청도 했고 개인적으로 지도부에 광주 의석수 존치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역구 당사자가 탈당하면서 핵심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대처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1석이 줄어든다면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까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 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여행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출발 7식, 목포출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